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자네는 묻는 법을 모르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천제(闡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보리를 묻지 않는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보리(菩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천제일 뿐이야.”

問 如何是闡提 師云 何不問菩提 云如何是菩提 師云 二者便是闡提

천제(闡提)는 둔재를 말한다. 지혜의 반대개념이다. 천제는 자신이 완벽한 붓다임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천제는 지혜와 믿음이 부족하여 부처가 되지 못하는 자이다. 지혜와 천제는 통한다. 천제를 알려면 먼저 지혜를 알아야 한다. 지혜를 알려면 먼저 천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천제를 알려면 지혜를 물으라 했다. 그리고 천제가 바로 지혜라고 했다. 오직 모를 뿐! 고집불통 천제! 최상의 지혜를 얻은 자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역대 선사가 모두 그러했다.

조주 스님이 어느 때 주먹을 쥐고 말했다. “나는 주먹이라고 부른다. 자네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학승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사람에게 경(境: 경계)을 보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경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만약 경을 자네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자네를 경(境)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어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곧 “잘들 있게”하고 인사말을 했다.

師有時屈指云 老僧喚作拳 你諸人喚作什麼 僧云 和尙何得將境示人 師云 我不將境示人 若將境示闡黎 即埋沒闡黎去也 云爭奈者箇何 師便珍重

선사가 주먹을 주먹이라고 말하고 사과, 주장자, 나무, 돌, 책상 등의 명칭을 그대로 말한다고 해도 경계를 보인 것이 아니다. 학승은 경계를 보이지만 선사는 보아야 본 것이 아니고, 말해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선사가 경계를 가지고 학승들을 가르치려한다면 그것은 학승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사가 남을 가르치는데 주먹을 주먹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를 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다만 ‘안녕!’ 하고 인사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1문 1답은 모두 천마(天魔)나 외도(外道)에 떨어질까? 가령 무언(無言)이라 해도 저 광망(罔罔: 어긋남)을 범

합니다. 무엇이 조주의 가풍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묻는 법을 모르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제발 화상께서는 대답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응당 방망이 20대는 맞아야 하나.”

問 一問一答總落天魔外道 設使無言又犯他罔罔 如何是趙州家風 師云 你不解問 云請和尚答話 師云 若據你合喫二十棒

일문일답이라도 있게 되면 천마(天魔) 외도에 떨어지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역시 어긋난다면서 어찌 가풍을 묻는가? 그렇게 말을 잘라놓고 물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무엇이 조주 스님의 가풍입니까?”하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선사는 자유자재로 취도검을 휘둘러 법을 보일 것이다.

만일 내게 학승이 이처럼 질문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예전에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 뜻을 아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조주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를 좋아해서 분분하고 그러는 것을 싫어한다. 만일 임제 스님이었다면 할이나 방을 내렸을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자미파 니까야 26)

이미 지나왔는데 자꾸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게 된다. 붙잡혀 버려서이다. 이 말이 내도록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되새김질 하게 된다.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도 ‘여래시여’, ‘스승이시여’ 라고 불러주지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 “나는 스승이다”라고 자임하고 나선 선언문(宣言文)이다. 거기에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이 홀로 깨침의 길을 걸었던 구도자의 고독이 있고, 그런 고독을 떨치고 일어나서 스스로가 스승이 됨을 선포하는 용기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볼 때, 나는 이런 화면을 부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 “부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은 아닌지요?” 비록 그것이 세속적인 이름이라거나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뒤에, 여래의 말씀을 듣고서 최초로 그의 제자가 되어 준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들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던 여래하셨을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물쇠를 꼭꼭 채우고 있음은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은 올바른 호칭을 부여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때 “이제 고타마 신타라. 마땅히 2인칭으로 불러야 할 존재를 타는 상대하지 말자. 그는 단상을 그만 두고 유미죽(유유죽)을 먹고서, 이 수행도량을 떠나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집단따돌림의 결의를 했던 그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마음의 문(門)을 조금은 열어줬었다는 것으로 일한다.

만약 그들이 조금의 틈새도 용납하지 않고, 옛날 그 결의대로 집단따돌림을 시도하였다면 그들은 침묵했을 것이다. 외면했을 것이다. “신타르타! 참으로 오랜 만이오”라는 식의 인사말을 토(吐)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을 불러

주기는 했던 셈이다. 고마운 일이다. 아무런 호칭으로도 불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부처님께서도 또 어떠했을까. 내게는 그런 쓸쓸한 기억이 있다. 한 학생이 있었다. 나를 아무런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았다. 나는 한번도 그 학생으로부터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 불러워 본 기억이 없다.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기다리면 고쳐지겠지, 했을 뿐이다. 무인칭(無人稱)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현대 문명의 병리현상일 뿐이다. 결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척도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면에서 “고타마 부처님”이라 하는 것도 예외에 맞



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그저 “부처님”이라 하면 된다.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시여”라거나 “여래시여”라 말하는 것은 존경의 염이 담긴 2인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고타마 부처님이시여”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는 것은 아직 거리감이 남아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마땅히 2인칭으로 불러야 할 존재를 3인칭으로 부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서 “고타마 부처님은 ---”이라 말하는 것은 옳다. 물론 그때 역시 “당신께서는”이라는 더 좋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 역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김춘수, 「꽃」)으로 불리고 싶다. 나와 너, 나와 그대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고, 불리고 싶어이다. 어쩌면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 한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9>

현실 통찰 사성제 바로 아는 처방전

팔정도-①정견(正見)

도성제(道聖諦)의 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이며, 이 수행법은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팔정도(八正道)라고 부른다. 팔정도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론이다. 즉 의사가 병자에게 내린 처방전인 것이다. 병이 나으려면 약의 복용과 규칙적인 식습관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 수행법 중 첫 번째가 팔정도의 정견(正見: sammāditthi)이다.

정견은 사성제(四聖諦)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괴롭다는 것[고성제(苦聖諦)]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집성제(集聖諦)]을 알고, 괴로움이 소멸해 열반을 얻는다는 것[멸성제(滅聖諦)]을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실천행[도성제(道聖諦)]을 아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팔정도는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결부돼 있다. 부처님 최초의 설법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

리’조차 의심한다면 계(戒)를 지키며 수행에 정진할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견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사성제를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착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통찰한 다는 것’은 법(法: dhamma)을 통찰한다는 말과 같다. 정견의 ‘바른 정(正)’을 뜻하는 팔리어 삼마(samma)가 법을 뜻하는 담마(dhamma)에 입각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견을 다른 말로 법견(法見)이라고 하며, 법견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근간으로 삼는다. 법[dhamma]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현실의 것[sanditthika]’을 말한다. 따라서 정견은 어떤 알기 어려운 관념적 진리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견은 집착을 떠나 중도의 입장에서 사성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지, 결코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세계를 본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의 세계이므로 그 고의 원인을 찾아 고통 소멸함으로써 열반을 얻는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행중 하나가 바로 정견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당연히 독화살부터 뽑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화살을 뽑기 전에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이며, 신분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또 화살은 어떤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모두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이 독화살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현실세계에서도 중생들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온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 괴로움의 독화살은 놓아 둔 채, 다른 엉뚱한 것에 정신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독화살에 맞았다면 화살을 쏜 자 혹은 화살의 재질 등을 알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견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다. 이는 마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다. 어둠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휩싸인 허망한 속세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올바른 길을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日 興 國 大 佛 教 學 院 前 本 誌 記 者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하십시오

임진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약속양초

한궁밀납양초

크리스탈발침 P.C컵 밀납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제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